



numbers
vol. 312

한국인의 정신건강 현주소

최근 5년 사이, 정신질환 진료 인원 38% 증가!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기독교 매체에 관한 비기독교인의 인식
- ②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인식

2025. 11. 25.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정신질환 진료 인원 38% 증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정신건강은 더 이상 일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최근 발표된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4'는 이러한 흐름을 보다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준다.

우선, 성인 10명 중 3명가량(28%)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정신적 어려움이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 위험' 요인임을 보여준다. 또한 최근 5년(2019~2024) 동안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38% 증가했다.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해 실제 의료적 도움을 찾는 이들이 빠르게 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번 <넘버즈 312호>에서는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4'의 주요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정신건강 실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정신건강 문제가 이제는 교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마주해야 할 현재적 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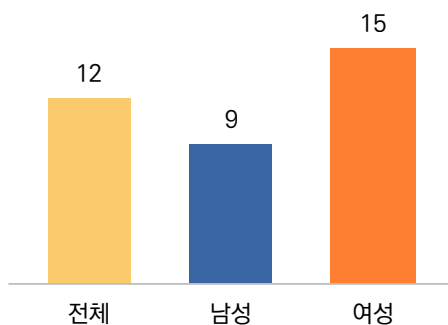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01

[정신건강 규모와 위험 수준] 일반 국민의 우울감 경험률 12%, 여성·20대에서 더 높다

-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 현주소를 지난 10월에 발표된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를 통해 살펴본다.
- 일반 국민의 우울감 경험률을 측정할 때, 성인 인구 중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해당 비율은 12%로, 여성(15%)이 남성(9%)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 연령별로 보면 20대 여성층에서 타 연령 대비 우울감 경험률이 크게 높은점이 주목된다.

[그림] 우울감 경험률 (2023, 19세 이상 성인, %)



[그림] 연령별 우울감 경험률 (2023, 19세 이상 성인, %)

	남성	여성
전체	9	15
20대	10	23
30대	9	15
40대	8	10
50대	9	12
60대	7	12
70세 이상	8	13

※출처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4, 2025.10.

*출처 :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발표, 2025.1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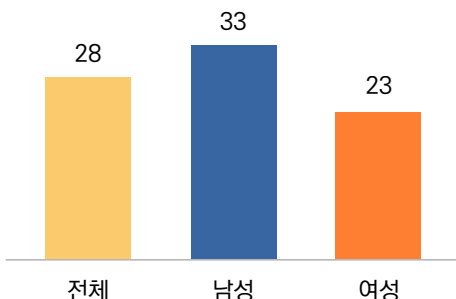
Note) 용어설명

- 우울감 경험률 : 성인인구 중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사람의 비율
- 고위험 음주율 : 최근 1년 동안 음주한 경험이 있는 19세 이상 인구 중 주 2회 이상 음주하고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여성 5잔) 이상인 사람의 비율
- 정신장애 평생유병률 : 평생동안 알코올 사용장애, 니코틴 사용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 중 어느 하나이라도 앓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성인 10명 중 3명가량, 평생 1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 경험!

- 이번에는 일반 국민의 정신장애 평생유병률을 살펴본다. 정신장애 평생유병률은 18세 이상 79세 이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평생동안 알코올/니코틴 사용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 중 하나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측정한 것으로, 전체 10명 중 3명가량(28%)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장애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정신장애 평생유병률 (2021, 18세 이상 79세 이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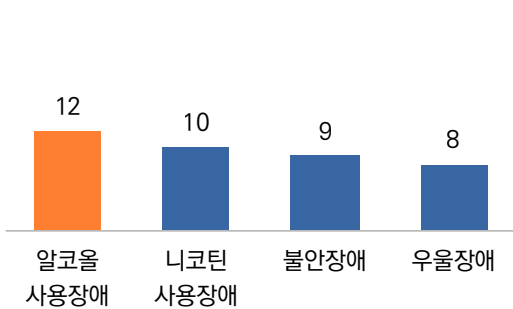


※출처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4, 202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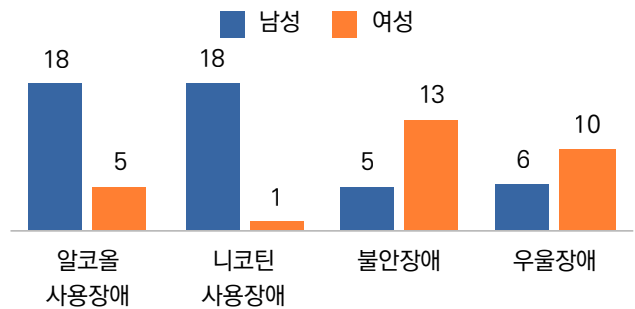
정신건강 문제별 평생 유병률, 여성은 '불안장애', 남성은 '니코틴/알코올 사용장애'가 가장 높아!

- 정신건강 문제별 평생 유병률을 살펴보면 '알코올 사용장애'(12%)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니코틴 사용장애'(10%), '불안장애'(9%) 등의 순이었다.
- 성별로는 남성은 니코틴/알코올 사용장애(18%), 여성은 불안장애(13%)가 가장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림] 정신건강 문제별 평생 유병률 (%)



[그림] 성별 정신건강 문제별 평생 유병률 (%)



※출처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4, 202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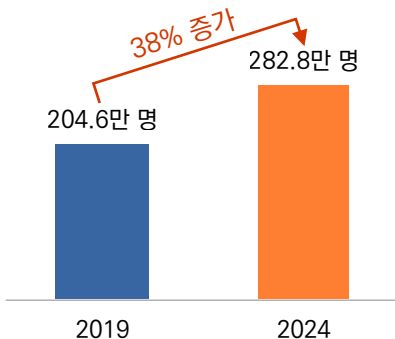
Note) 용어설명

- 알코올 사용장애 : 알코올 의존, 알코올 남용
- 니코틴 사용장애 : 니코틴 의존, 니코틴 금단
- 우울장애 : 해당 조사에서는 양극성 장애장애 항목은 제외되어, 주요우울장애와 기분부전장애를 합친 진단군을 우울장애라고 구분함
- 불안장애 : 강박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공황장애, 광장 · 사회 · 특정공포증, 범불안장애를 포함

02 [정신질환 진료·입원 현황] 최근 5년 사이, 정신질환 진료 인원 38% 증가

-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15세 이상 환자 수는 2019년 204.6만 명에서 2024년 282.8만 명으로 증가했다. 5년 사이 약 38%의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그림] 정신질환 진료 환자 수* (15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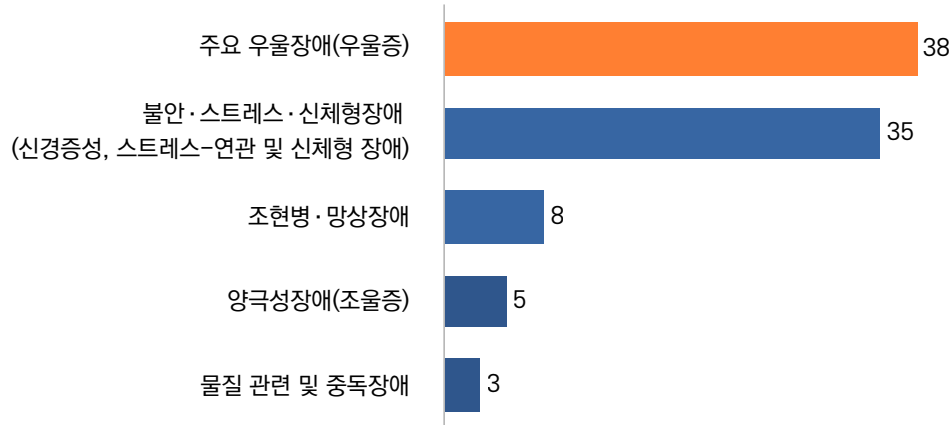
※출처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4, 2025.10.

*정신의료기관에서 F코드로 진료받은 실인원으로, 치매는 제외함

가장 많이 겪는 정신질환, ‘우울증’(38%)!

- 정신질환별로 해당 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 구성비를 살펴보면, ‘주요 우울장애(우울증)’가 38%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다음으로 ‘불안·스트레스·신체형장애’(35%), ‘조현병·망상장애’(8%), ‘양극성장애’(5%) 등의 순이었다.
- 전반적으로 정신건강 문제 가운데 우울과 불안 증상을 경험하여 진료를 받는 환자가 매우 많음을 보여준다.

[그림] 정신질환별 환자 구성비 (2024, 15세 이상, 상위 5개, %)



※출처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4, 2025.10.

‘우울과 불안’이 전 세대를 관통하는 핵심 정신질환!

- 연령대별 주요 정신질환 유형을 살펴보면, 10~30대에서는 ‘주요 우울장애’가 1위로 나타났다가, 40~50대와 60대 초반에서는 ‘불안·스트레스·신체형 장애’가 1위로 올라섰다. 이후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다시 ‘주요 우울장애’가 1위를 차지했다.
- 이를 종합하면, 모든 세대에서 우울과 불안이 정신건강의 핵심 문제이며, 다만 연령대에 따라 우울과 불안의 상대적 비중이 달라지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표] 연령대별 정신질환 유형 비중 (2024, 15세 이상, 상위 3개)

	15~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64세	65세 이상
1위	주요 우울장애 (39%)	주요 우울장애 (44%)	주요 우울장애 (42%)	불안·스트레스·신체형 장애 (40%)	불안·스트레스·신체형 장애 (37%)	불안·스트레스·신체형 장애 (35%)	주요 우울장애 (36%)
2위	불안·스트레스·신체형 장애 (28%)	불안·스트레스·신체형 장애 (32%)	불안·스트레스·신체형 장애 (35%)	주요 우울장애 (38%)	주요 우울장애 (33%)	주요 우울장애 (34%)	불안·스트레스·신체형 장애 (32%)
3위	양극성 장애 (5%)	양극성 장애 (7%)	조현병·망상 장애 (7%)	조현병·망상 장애 (10%)	조현병·망상 장애 (13.9%)	조현병·망상 장애 (13%)	조현병·망상 장애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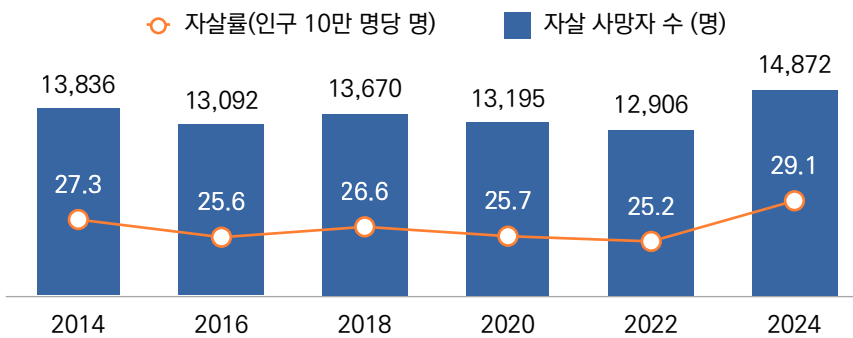
※출처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4, 2025.10.

03

[자살 실태] 자살률, 코로나 직후 하락하다가 다시 급증!

-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는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의 ‘2024년 사망원인통계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자살 실태를 살펴본다.
- 2024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나타났으며, 한 해 동안 14,87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자살률은 코로나 시기였던 2022년 25.2명까지 낮아졌으나, 2024년 29.1명으로 크게 상승하며 반등했다.

[그림] 최근 10년간 자살자 수 및 자살률 (2014~2024)



※출처 :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보도자료, 2024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2025.09.25.

자살, 40대까지 사망원인 1위!

- 연령별 사망원인을 보면 10~40대에서는 ‘자살’이 사망원인 1위로 나타났으며, 50대에서는 2위, 60대는 4위로 내려갔다.
- 특히 10~30대 젊은 세대에서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안팎으로 높아, 청소년·청년층에서 자살이 압도적 주요 사망원인임을 알 수 있다.

[표] 연령별 5대 사망원인 및 구성비 (2024)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1위	자살 (48%)	자살 (54%)	자살 (44%)	자살 (26%)	암 (35%)	암 (41%)	암 (35%)
2위	암 (12%)	암 (11%)	암 (15%)	암 (25%)	자살 (12%)	심장 질환 (8%)	심장 질환 (8%)
3위	운수사고 (9%)	운수사고 (7%)	심장 질환 (5%)	간 질환 (9%)	심장 질환 (8%)	뇌혈관 질환 (6%)	뇌혈관 질환 (7%)
4위	심장 질환 (3%)	심장 질환 (2%)	간 질환 (5%)	심장 질환 (7%)	간 질환 (8%)	자살 (5%)	폐렴 (7%)
5위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3%)	뇌혈관 질환 (2%)	운수사고 (4%)	뇌혈관 질환 (5%)	뇌혈관 질환 (6%)	간 질환 (4%)	당뇨병 (4%)

※출처 :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보도자료, 2024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2025.09.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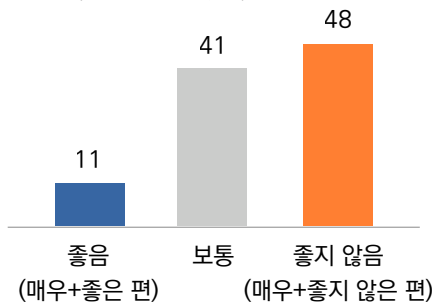
04

[정신건강 인식·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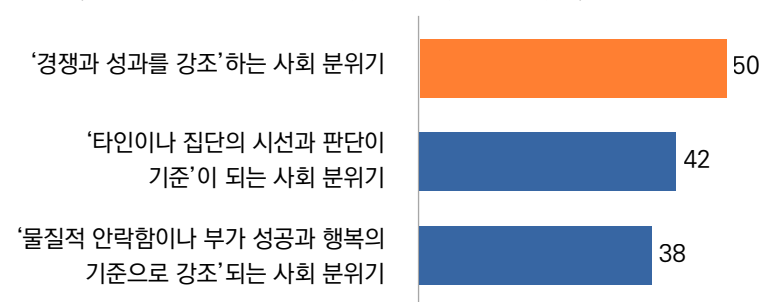
우리사회 정신건강, '좋지 않다 48%'...경쟁중심분위기영향케

- 서울대 보건대학교 교육연구단이 실시한 '정신건강 증진과 위기 대비를 위한 일반인 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 사회가 정신건강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본다.
- 먼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정신건강 수준이 어떠한지 묻은 결과, '좋지 않음'이 48%로 ' 좋음'(11%)보다 크게 높아 부정적 인식이 두드러졌다.
- 정신건강 수준이 좋지 않다고 응답한 자들에게 우리 사회의 어떤 분위기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지를 묻은 결과, '경쟁과 성과를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50%)가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림]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수준
(만 18세 이상, %)



[그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분위기
(‘매우+ 좋지 않은 편’ 응답자, 1+2순위, 상위 3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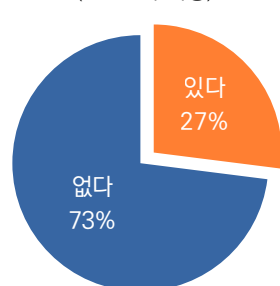


※출처 :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도자료, 정신건강 증진과 위기 대비를 위한 일반인 조사 주요 결과, 2024.05.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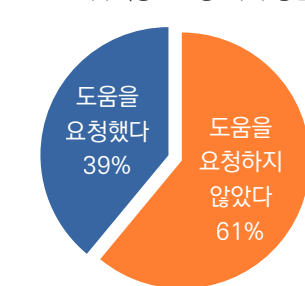
정신건강 위기 경험자 5명 중 3명(61%), 도움 요청 못했다!

- 지난 1년 동안 일상적 역할이나 책임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건강 위기를 경험한 성인(만 18세 이상)은 27%로 4명 중 1명 수준이었다.
- 위기 경험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는지 묻은 결과,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61%)가 ‘도움을 요청했다’(39%)보다 높았다.
-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로는 ‘우려와 두려움’(42%)이 가장 많이 꼽혔다.
- 정신건강 위기 경험이 있어도 상당수가 도움 요청을 주저하는 만큼, 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두려움을 줄이는 공공/교회 차원의 안내와 지원 체계가 필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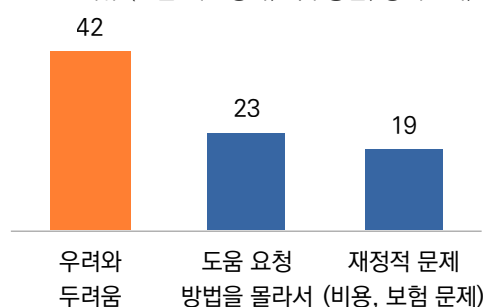
[그림] 정신건강 위기 경험
(만 18세 이상)



[그림] 정신건강 위기 경험 시 도움 요청 여부 (정신건강 위기 경험자)



[그림] 정신건강 위기 경험 시 도움 요청하지 못한 이유 (도움 미요청자, 복수응답, 상위 3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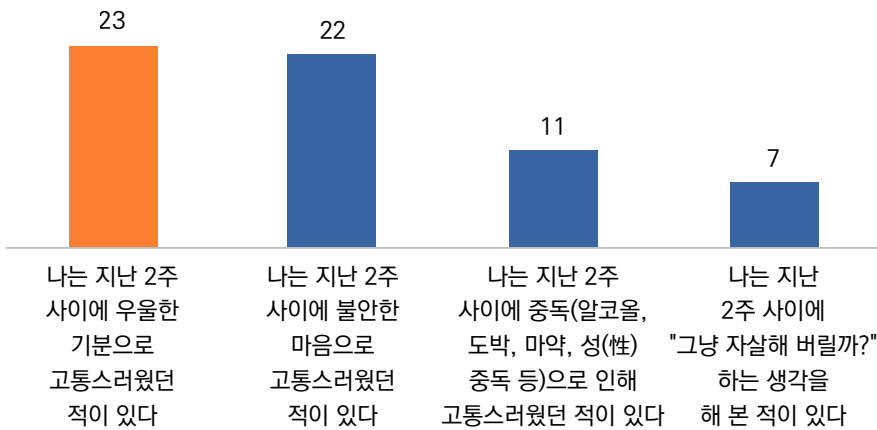
※출처 :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도자료, 정신건강 증진과 위기 대비를 위한 일반인 조사 주요 결과, 2024.05.07.

05

[기독교인(성도/목회자)의 정신건강] 성도 4명 중 1명 가까이, 현재 우울/불안 문제 경험!

- 한국 기독교인들의 정신건강 상태는 어떠할까? 2025년 한국교회 트렌드 정신건강 편(멘탈케어커뮤니티)에 따르면 성도(출석교인)의 23%가 '지난 2주 사이에 우울감으로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지난 2주 사이 불안감으로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다'도 22%로 나타났다. 성도 4명 중 1명 가까이가 현재 우울과 불안으로 고통받고 있는 셈이다.
- 또한 '중독'과 '자살 충동'을 경험한 성도도 각각 11%, 7%로 조사됐다.

[그림] 현재 정신건강 상태 (출석교인, '매우+어느 정도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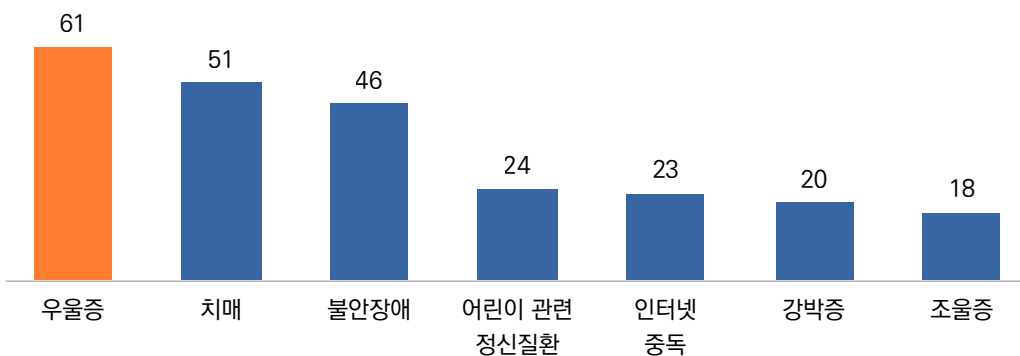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기아대책/월드비전, 한국교회 트렌드 2025(한국교회 정신건강 조사), 2024.09.(기독교인 조사: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교회출석자 1,000명, 온라인 조사, 2024.05.24.~06.03./목회자 조사: 전국의 담임목사 500명, 온라인 조사, 2024.05.23.~06.03.)

성도들이 원하는 정신건강 교육, 우울증·치매 각각 1,2위!

- 이번에는 성도들에게 어떤 정신질환에 대해 교육받기 원하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1+2+3순위), '우울증'(61%)이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치매'(51%), '불안장애'(46%), '어린이 관련 정신질환'(24%), '인터넷 중독'(23%) 등의 순으로 관심을 보였다.

[그림] 교육받고 싶은 정신질환 (출석교인, 1+2+3순위, 상위 7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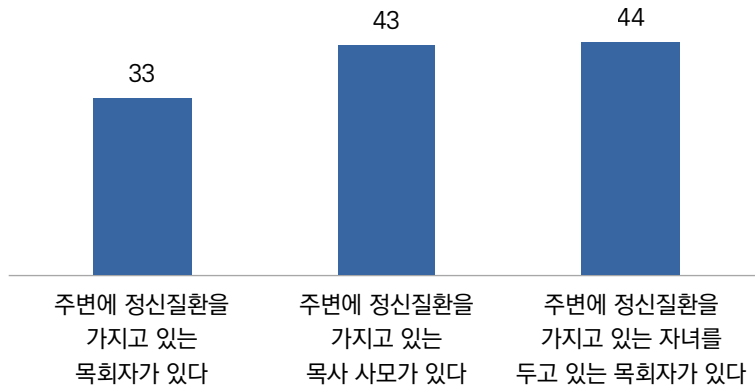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기아대책/월드비전, 한국교회 트렌드 2025(한국교회 정신건강 조사), 2024.09.(기독교인 조사: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교회출석자 1,000명, 온라인 조사, 2024.05.24.~06.03./목회자 조사: 전국의 담임목사 500명, 온라인 조사, 2024.05.23.~06.03.)

담임목사 3명 중 1명, ‘주변에 정신질환 가진 목회자 있다’!

- 목회자, 사모, 목회자 자녀의 정신 건강 수준은 괜찮을까? 목회자(담임목사)에게 주변 목회자, 사모, 목회자 자녀의 정신질환 여부를 묻은 결과, 목회자 3명 중 1명은 ‘주변에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있다고 응답했다.
- 또 ‘주변의 목사 사모’(43%)와 ‘목회자 자녀’(44%)의 정신질환 응답률은 40%를 넘어 목회자뿐 아니라 목회자 가정의 정신건강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림] 주위 목회자의 현재 정신질환 여부 (담임목사, ‘매우+어느 정도 그렇다’ 비율*, %)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기아대책/월드비전, 한국교회 트렌드 2025(한국교회 정신건강 조사), 2024.09.(기독교인 조사: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교회출석자 1,000명, 온라인 조사, 2024.05.24.~06.03./목회자 조사: 전국의 담임목사 500명, 온라인 조사, 2024.05.23.~06.03.)

이번호 요약

1. 최근 5년 사이, 정신질환 진료 인원 38% 증가!

- 정신질환으로 진료 받은 15세 이상 환자 수는 2024년 282.8만 명으로 5년 전인 2019년(204.6만 명) 대비 3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장 많이 겪는 정신질환, ‘우울증’(38%)!

- 정신질환별 환자 구성비를 보면, ‘주요 우울장애(우울증)’가 38%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3. 자살률, 코로나 직후 하락하다가 다시 급증!

- 2024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한국의 자살률은 코로나 시기였던 2022년 25.2명까지 낮아 졌다가 2024년 다시 급반등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서적] 필링 굿 (아름드리미디어, 데이비드 번즈)

관련 성경 구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목회 적용점

정신건강 문제가 한국사회 전반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지금, 교회는 이를 개인 신앙의 문제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현실적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특히 최근 5년간 국내 정신질환 진료 인원이 38% 증가하고, 우울증과 불안을 경험하는 이들이 늘어나며, 자살률까지 다시 상승하는 흐름은 교회가 구조적인 대응을 고민해야 함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교회는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까?

첫째,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바른 인식을 형성하고 신앙적 낙인을 해소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정신적 어려움을 죄나 믿음의 부족으로 치부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누구나 생애 어느 시점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로 이해하도록 돕는 신학적·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 목회자는 설교와 교육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우울증, 치매, 공황장애 등 성도들이 관심있는 정신건강 이슈를 주제로 한 세미나와 강좌를 개교회/노회/지방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문적 치료와 신앙적 돌봄을 잇는 체계적인 돌봄(소그룹)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최근 들어 한국교회 내 돌봄 문화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실제 소그룹에서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되고 있다는 여러 보고들이 올라오고 있다. 코로나 이후 성장하는 교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소그룹 요인인데, 소그룹 내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돌봄 문화가 확산돼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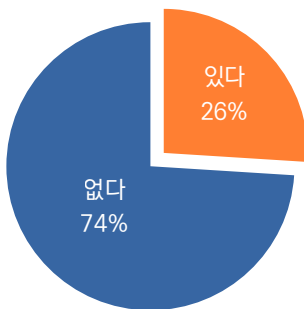
1. 기독교 매체에 관한 비기독교인의 인식
2.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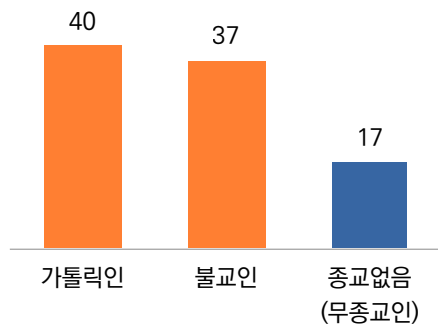
[기독교 매체에 관한 비기독교인의 인식] 비기독교인 4명 중 1명, 기독교 방송 통해 예배 본 경험 있다

- 일반국민들은 기독교 매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비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매체 인식을 살펴본다. 기독교 방송이나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 예배/선교 프로그램을 본 경험이 있는지 묻은 결과, 비기독교인 4명 중 1명꼴(26%)로 '있다'고 응답했다.
- 종교별로 보면 '가톨릭인'(40%)과 '불교인'(37%)이 '무종교인'(17%)보다 기독교 방송 매체를 통한 선교 접촉 경험률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림] 기독교 방송이나 인터넷, 유튜브를 통한 예배/선교 프로그램 접촉 경험 (비기독교인)



[그림] 종교별 기독교 방송 매체 통한 예배/선교 프로그램 접촉 '경험 있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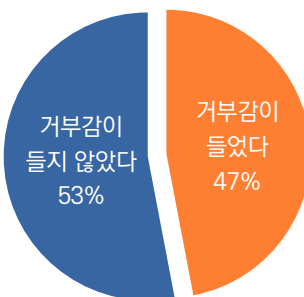


※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23.06.(전국 만 19세 이상 기독교인 2,000명, 비기독교인 1,000명, 기독교 담임 목회자 802명, 온라인 조사, 2023.01.09.~0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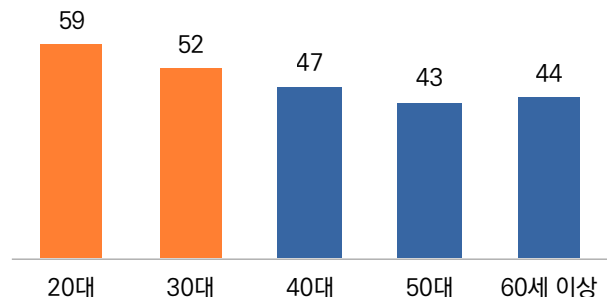
기독교 방송 본 비기독교인 절반 이상, 거부감 없었다

- 방송 혹은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 예배/선교 프로그램을 본 비기독교인의 느낌은 어떠할까? 절반 이상(53%)이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고 답했고, 47%는 '거부감이 들었다'고 응답했다.
- 다만 연령별로 보면 '19~29세'(59%)와 '30대'(52%) 젊은 층에서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거부감을 보인 점이 주목된다.

[그림] 예배/선교 프로그램 접촉 후 느낌 (기독교 방송 매체 예배/선교 프로그램 접촉 경험자)



[그림] 연령별 예배/선교 프로그램 접촉 후 '거부감 들었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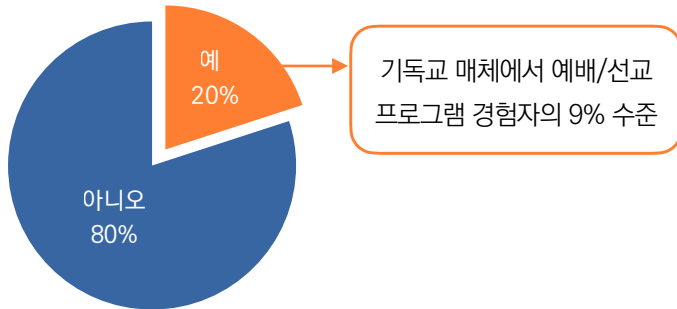


※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23.06.(전국 만 19세 이상 기독교인 2,000명, 비기독교인 1,000명, 기독교 담임 목회자 802명, 온라인 조사, 2023.01.09.~02.12.)

기독교 방송 경험한 비기독교인 10명 중 1명, 교회 나갈 마음 생겼다!

- 기독교 방송 매체를 통해 예배나 선교를 접했을 때 거부감이 없는 자들을 대상으로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지를 물었다. 20%가 그렇다고 응답했는데, 이를 전체 기독교 매체 예배/선교 프로그램 경험자 기준으로 보면 9% 수준이다. 즉 기독교 방송을 본 비기독교인 10명 중 1명(9%) 정도는 교회 나갈 마음이 생긴 셈이다.

[그림]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 (기독교 방송 매체 예배/선교 접촉 시 거부감 없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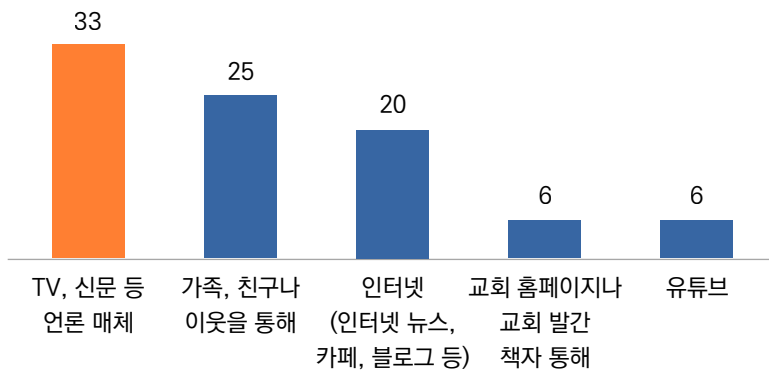


※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23.06.(전국 만 19세 이상 기독교인 2,000명, 비기독교인 1,000명, 기독교 담임 목회자 802명, 온라인 조사, 2023.01.09.~02.12.)

교회 활동 정보 습득처 1위, TV/신문 등 언론매체

- 비기독교인들에게 교회 활동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습득하는지 묻은 결과, 'TV, 신문 등 언론매체'가 33%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족, 친구나 이웃을 통해' 25%, '인터넷' 20% 등의 순이었다.

[그림] 교회 활동에 대한 정보 얻는 곳 (비기독교인, %)



※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23.06.(전국 만 19세 이상 기독교인 2,000명, 비기독교인 1,000명, 기독교 담임 목회자 802명, 온라인 조사, 2023.01.09.~0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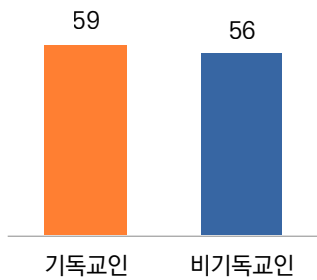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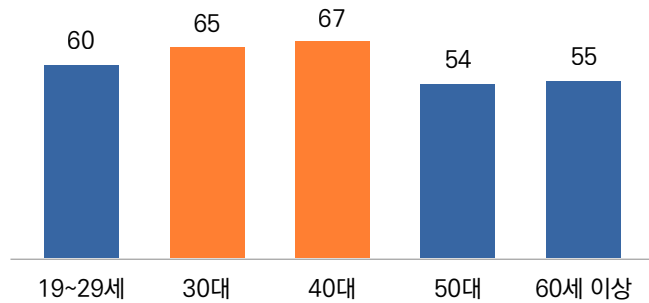
죽음에 대한 두려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 비슷한 수준!

- 죽음에 대해 얼마나 두렵게 느끼는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불교인, 천주교인, 무종교인)에게 각각 묻은 결과, 기독교인의 59%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30대(65%)와 40대(67%)가 높고, 50대 이후부터는 두려움이 다소 약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 비기독교인(56%)과 비교했을 때, 기독교인이 3%p가량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비율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두렵다' 비율*, %)



[그림] 연령별 죽음에 대한 두려움 (기독교인, '두렵다' 비율*, %)



※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23.06.(전국 만 19세 이상 기독교인 2,000명, 비기독교인 1,000명, 기독교 담임 목회자 802명, 온라인 조사, 2023.01.09.~02.12.)

*4점 척도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642호 \(2025년 11월 3주\)](#)

- 지방선거 결과 기대, 경제 전망

사회 일반

["남녀 임금 격차 줄면 남편 가사 분담 늘고 출산율도 오를 것"](#)

연합뉴스_2025.11.24.

["도시민 농업·농촌 관심도 61%로 낮아져...2년 전보다 뚝"](#)

연합뉴스_2025.11.20.

["지방소멸, 외국인 유입만으로 역부족...경제구조개선 병행돼야"](#)

연합뉴스_2025.11.24.

[대학가 부정행위 5년간 224건...‘챗GPT 사용’ 4건 모두 F 학점](#)

연합뉴스_2025.11.24.

[미혼남녀 절반 "연인에 돈 빌려줄 수 있다"...금액 묻자 남녀 온도차](#)

중앙일보_2025.11.21.

[세계인이 자주 먹고 즐기는 한식은 ‘이것’...2위 김치·3위 비빔밥](#)

동아일보_2025.11.23.

[서울 명동, 세계 주요 도심상권 중 연간 임대료 9위 유지](#)

연합뉴스_2025.11.19.

[2025 결혼식\(스몰웨딩 등\) 관련 인식 조사](#)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_2025.11.18.

[서울대, 인문·사회·경영 최우수...성균관·포스텍, 이공계 최강대 \[2025 대학평가\]](#)

중앙일보_2025.11.25.

아동 · 청소년 · 청년

[시는 '이대남' 때렸다...이대녀와 고용률 격차 5.1%p 역대 최대](#)

중앙일보_2025.11.19.

[청년 취업 ‘좁은 문’ 더 좁아져...1년 새 신규 채용 12만개 감소](#)

한겨레_2025.11.24.

[‘김대리는 집이 없다’...서울 30대 무주택 가구 53만 역대 최대](#)

연합뉴스_2025.11.24.

[‘오죽했으면’...도박에 빠진 20대男 부모 “우리 아들 구속시켜주세요”](#)

문화일보_2025.11.24.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노인

[고령 운전자 141명 분석하니… 페달 오조작 의심 석달새 71건](#)

국민일보_2025.11.24.

경제 · 기업

[해외 금융자산 '부메랑'… 원화 가치,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

국민일보_2025.11.24.

[매출 100대 기업에 부산 '0'…1000대 기업은 28곳뿐](#)

매일경제_2025.11.18.

[인사담당자 10명중 7명 "채용 때 출신학교 본다"](#)

매일경제_2025.11.19.

[직장인 10명 중 7명 "정년 더 늘려야"…이유는 노후 불안](#)

연합뉴스_2025.11.19.

[중소기업 86% "고용연장, 선별 재고용이 바람직"](#)

매일경제_2025.11.19.

[옛말 돼가는 경단녀… 자녀 있는 기혼 여성 고용률 64% 역대 최고](#)

조선일보_2025.11.21.

["시민 80% '노동시장 불평등' 인식…근로기준법 적용 확대해야"](#)

연합뉴스_2025.11.18.

건강

[운동+식단 병행해야 내장지방 잡는다…케임브리지 7년 추적 연구](#)

동아일보_2025.11.24.

['항생제 복용 세계 2위' 한국, 내성으로 한해 3만여명 숨질 수도](#)

국민일보_2025.11.21.

기독교 · 종교

[아동 가정위탁 '찬바람'… 교회가 돌봄 주체로 나서야](#)

국민일보_2025.11.18.

[예장합동 대형교회 줄줄이 새 리더십 세운다](#)

국민일보_2025.11.19.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원로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민선영, 유영민, 김찬술, 한미경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주)디엔텍세븐컨설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정책연구소, 라잇나우미디어,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치움, 크리스찬타임스, 퓨처처치연구소(FCI),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후원 방법 (국내)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방법 (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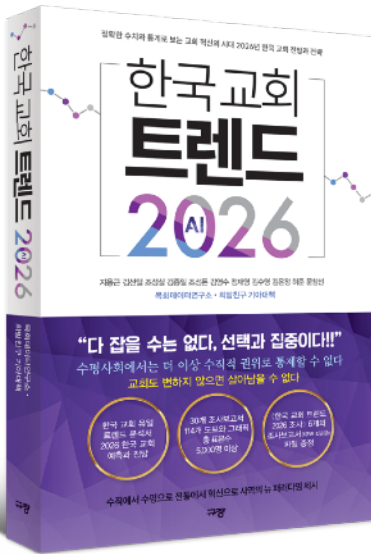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연구소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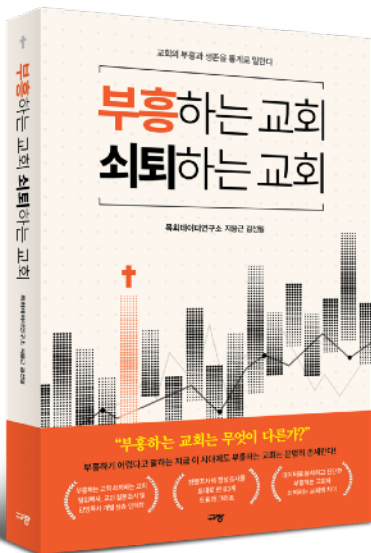
「한국교회 트렌드 2026」 책 구입 안내

목회데이터연구소와 기아대책이 공동으로 준비한 책이 출간됐습니다. 2026년도 예상되는 한국교회 이슈와 트렌드 10가지를 주제로 선정하였는데, 이 책이 내년도 목회 전략을 수립하는데 올바른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책 구입 문의 : 02-322-0726, 유영민 간사)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책 구입 안내

목회데이터연구소는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를 출간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담임목사, 성도를 총 1,320명 조사하여 각각의 특징을 통계적으로 규명하였습니다.

(책 구입 문의 : 02-322-0726, 유영민 간사)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